어느 기술사의 슬픈 이야기

내 후배가 삶에 대한 의욕을 잃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길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살이란 삶에 대한 희망을 더 이상 가질 수 없을 때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행동이 아니던가.
그는 왜 40이라는 나이에 기술사라는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경력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모색했어야 했나.

6개월 전쯤에 냉동 공조 기술사인 그가 나를 찾아왔다. 학교 후배인 그는 올해 40세로 가끔 얼굴을 보며 지내던 터였다. 유수한 공조 기기 회사에서 팀장을 맡아 근무하던 그는 작년 하반기에 회사를 그만두고 6개월 정도 실직 상태였다고 한다.

고영회
기술사 · 변리사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
http://www.patinfo.com

소주잔을 놓고 여러 얘기를 나눴다. 회사를 그만두고 실직 상태인데 앞으로 뭘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면서 조심스레 변리사 시험에 대해 기간, 공부 강도, 미래 전망 등에 대해 물어왔다. 변리사 시험에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모양이다. 나는 매몰차다 싶게 현재 그 나이로 변리사 시험에 도전하는 것은 무모하다,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짓다시피 말렸다. 차라리 기술사로서 냉동 공조, 기계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알아보도록 권했다.

실제 변리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의 나이는 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대부분이다. 실제 합격하는 사람의 나이 분포도 그렇다. 시험 준비를 3년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보면 나이 40이 되어 시험 공부를 시작하여 합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실제 나이 40을 넘어 합격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점차 최고령 합격자의 나이도 내려가는 추세이니 현실 그대로를 말한 셈이다. 현실이 그러한데 어떻게 변리사에 도전하라고 권할 수 있겠는가.

그날 밤늦게까지 앞일 때문에 고민했던 그 후배가 2달이 지난 뒤 한강에 투신 자살했다는 청천 벽력같은 소식을 들었다.

최근 다른 사람의 소개로 나이 44세의 건설 기계 기술사가 변리사 시험을 준비해볼까 하면서 조언을 구해왔다. 역시 이 분에게도 지금 나이로 변리사 시험에 도전하는 것은 무모하다, 심하게 얘기해서 합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내 생각을 얘기해주었다.

나는 변리사 시험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내 후배가 삶에 대한 의욕을 잃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길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살이란 삶에 대한 희망을 더 이상 가질 수 없을 때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행동이 아니던가. 그는 왜 40이라는 나이에 기술사라는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경력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모색했어야 했나. 44세의 그 기술사는 이제 와서 왜 변리사라는,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했을까.

기술사(技術士)가 누구인가. 기술사는 기술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격으로 기술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 기술사가 사회에서 버림받고 있다. 기술사에게 전문 업역이 보장되지 않고, 업역 침범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어 독자적인 사무소를 개설해봐야 유지되지 않는다. 2만 6,000여 기술사 중에서 사무소를 차린 기술사가 1,000명 미만이라는 통계로써 이러한 현실을 알 수 있다. 또, 엔지니어링, 건설 분야 기술사는 이른바 학경력기술자제도(「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하여 일정한 학력, 경력이 있으면 정규 자격자와 같이 대우해주는 제도) 때문에 오히려 직장에서 버림받고 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공계 문제가 제법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한 대책이라고 정부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참으로 딱하다.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은 병력 특례, 장학금 확대, 우수 과학 교사 배치, 과학기술인상 제정 등인데 모두 사탕발림으로 일관하고, 그나마 모두 연구자 중심의 대책이고 기술자 대책은 없다. 정책을 마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가졌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이러한 정책으로 이공계 기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일까.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결할 답은 간단하다. 기술자나 연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변리사, 변호사, 의사 등과 버금가는 정도로 사회적 위상을 갖도록 정책을 마련한다면 이공계 가지 말라고 해도 갈 것이고, 이러한 정책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까. 우리에게 그러했던 역사가 있었고, 그 시절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 경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기술자나 연구원의 사회적인 위상이 해결되지 않는 한 진로 때문에 걱정하는 기술자는 계속 생겨날 것이다. 슬픈 기술자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할 것인가.